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이승엽 2군행

## 부상·성적부진 부담 커 자청

이승엽(31)이 계속되는 부진 끝에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이적 후 처음으로 2군행을 자청했다.

‘요미우리 신문’을 필두로 일본 스포츠전문지인 ‘스포츠히치’, ‘스포츠포스트’, ‘산케이 스포츠’ 등은 12일 인터넷판에서 이승엽이 2군으로 내려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이승엽이 왼쪽 어깨 통증으로 시즌 초반부터 계속 부진했다. 타율 0.254에 15홈런, 42타점의 성적은 지난해 4번 타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며 2군 강등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요미우리 홈페이지는 이날 오후 이승엽이 왼손 엄지손가락 통증 탓에 2군행을 자청했다고 소개한 뒤 “2군행을 하라 감독님이 허락해주셨다. 중요한 순간 팀을 떠나게 돼 죄송하지만 복귀 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승엽의 말을 실어 2군행이 스스로 결정에 따른 것임을 부각시켰다.

이승엽은 올스타전 무렵인 20~21일까지 컨디션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라 감독은 그때 상태를 점검한 다음 1군 합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승엽은 4번을 아베 신노스케에게 내주고 5. 6번에 배치됐다가 아베가 부진한 틀을 타 지난 10일 한신전에서 다시 4번에 복귀했지만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한 뒤 11일

### 4번타자 복귀 이후

### 9타수 무안타 저조

### 하라 감독에 요청

의 말을 실어 2군행이 스스로 결정에 따른 것임을 부각시켰다.

이승엽은 올스타전 무렵인 20~21일까지 컨디션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라 감독은 그때 상태를 점검한 다음 1군 합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승엽은 4번을 아베 신노스케에게 내주고 5. 6번에 배치됐다가 아베가 부진한 틀을 타 지난 10일 한신전에서 다시 4번에 복귀했지만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한 뒤 11일

에도 5타수 무안타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지난해 지바 롯데 마린스에서 요미우리로 이적한 이승엽은 2년 7개월 만에 다시 2군의 쓰라림을 맛보게 됐다.

센트럴리그 선수를 질주하던 요미우리는 투타 밸런스의 붕괴로 시즌 첫 5연패에 빠지며 위기를 맞고 있다. 2위 주니치와 승차는 1게임, 12일 결과에 따라서는 1, 2위가 바뀔 수도 있는 형국이다.

이승엽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왔던 하라 감독은 부활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승엽을 비롯해 11일 실력으로 패배의 빌미를 제공한 내야수 와키야 료타, 투수 구보 유야 등 5명을 동방 2군으로 보냈다.

이승엽은 당분간 가와사키 자이언츠 구장에서 엄지 통증을 가라앉히고 타격감을 되찾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프로야구 서머리그 15일부터 한달간

프로야구 출범 이래 처음으로 서머리그가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 각 구단은 순위경쟁을 하면서 초대 서머리그 우승 트로피와 상금 2억원을 차지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정을 맞게 됐다.

서머리그 기간 팀당 23경기씩 총 92경기가 열려 올해 전체 일정(540경기)의 18%에 해당한다.

이 기간 우천 및 기타 사유로 연기된 경기, 이전에 일시정지(서스펜디드)돼 서머리그 때 진행된 경기, 서머리그 중 열려 서머리그 후로 연기되는 일시정지(서스펜디드) 경기는 서머리그 승률 경기 수에서 제외된다.

우승팀은 페넌트레이스와 동일한 승률제로 가려지며 승률 1위팀이 2개 팀 이상일 경우 리그 기간 전체 다승, 다득점, 최소실점, 최고 타율 순으로 결정된다. 최우수선수(MVP)는 상금 500만원, 우수 타자와 우수 투수는 200만원을 받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표도르와 격투기 훈련 마친 천하장사 출신 이태현 귀국

민속씨를 천하장사 출신 이태현(31)이 러시아에서 ‘얼음 황제’ 표도르 에멜리아넨코(31)와 함께 한 4개월 간의 합동 훈련을 마치고 13일 국내에 복귀한다.

이태현 매니지먼트사인 사이칸SG는 이태현이 13일 오전 11시 10분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격투기 대회 출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컨디션 유지를 위해 국내 모처에서 훈련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태현은 지난 3월 표도르가 소속된 격투기 단체 레드데벨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난 뒤 시내 외곽에 위치한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해 왔다.

현지 전문 트레이너에게서 삼보와 그라운드 기술, 입식 타격을 집중적으로 배웠고 지난 5월부터는 한 달 이상 레드데벨 팀원들과 함께 모스크바 인근 산악지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소화해내기도 했다.

이태현은 “러시아에서 체력을 보완했고 프라이드에서 필요한 기술도 전수받았다”면서 “앞으로 허무하게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소속사를 통해 각오를 전했다.

### “빅쇼이 오랜만이야”

KIA 타이거즈 최희섭이 12일 1군 복귀전인 삼성과 경기에서 4번타자로 선발 출전, 1회말 파울타구를 날리고 있다. /위적량기자 jrwi@kwangju.co.kr

## US오픈 테니스 우승상금 12억8,600만원 ‘메이저 최고’

올해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 테니스가 남녀 단식 우승상금으로 역대 최고인 12억8천600만원(140만달러)씩 책정됐다.

AP통신은 12일 US오픈조직위원회가 8월28일부터 9월10일까지 열리는 2007 US오픈의 총상금 규모를 1천960만달러

로 확정하고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을 각각 140만달러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승상금은 지난해 120만달러에서 20만달러씩 오른 금액으로 역대 메이저대회 최고였던 올해 Wimbledon 상금(12억8천500만원)보다 100만원 더 많다.

US오픈조직위원회는 북미 하드코트에

서 벌어지는 10개 투어 대회인 US오픈 시리즈에서 상위 3위에 드는 남녀 선수가 US오픈에서 1~3위에 오르면 각각 100만달러, 50만달러, 25만달러씩 총 350만달러를 더 쥐 US오픈의 총상금 규모는 2천310만달러로 늘어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슈퍼루키 김경태 ‘황홀한 입맞춤’

### KPGA 애플시티오픈 우승...시즌 3승 을 상금 3억 2천372만원 ‘시즌 최고’

한국프로골프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슈퍼루키’ 김경태(21·신한은행)가 또 한번 신기원을 이룩했다.

김경태는 12일 중국 연타이 애플시티골프장(파71·7천179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SBS코리아투어 삼성 애플시티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1오버파 72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2언더파 201타로 정상에 올랐다.

시즌 개막전 토마모저축은행오픈과 시즌 두번째 대회 매경오픈을 잇따라 우승한 뒤 5개 대회를 우승없이 보냈던 김경태는 시즌 세번째 우승으로 새로운 기록을 쏟아냈다.

우승 상금 6천만원을 받은 김경태는 시즌 상금이 3억2천372만원으로 늘어난 지난해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이 세웠던 시즌 최고 상금기록을 넘어섰다.

게다가 강경남이 시즌 내내 상금을 쌓아 세운 기록을 김경태는 프로 데뷔 7개월만에 불과 8개 대회를 치른 끝에 갈아치우는 괴력을 발휘했다.

시즌 3승은 지난 2000년 최광수(47·동아제약), 강국순(41·삼성전자) 이후 7년만에 나온 기록이며 1985년, 1986년, 1991년 최상호(52·카스코)가 세차례 세운 시즌 최고 우승 기록(4승) 경신도 눈앞에 왔다. 상금 3억원 돌파와 시즌 3승 모두 최연소 기록(20세 10개월)이다.

이와 함께 앞선 두 차례 우승은 모두 역전승으로 장식했던 김경태는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의 기쁨도 누렸다.

1라운드부터 최종 라운드까지 한번도 선수를 내주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은 4라운드 치러지는 남자프로골프대회에서는 쉽지 않은 기록으로 올해는 SK텔레콤 챔피언 배상문(21·켄러웨이)에 이어 두번째다.

또 모종경은 5번홀(파4) 더블보기를 이후 5개의 버디로 만회하며 3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7언더파 206타로 2위까지 순위를 끌어



2일 중국 연타이의 애플시티골프장에서 열린 SBS코리아투어 삼성 애플시티 오픈에서 우승한 김경태가 우승컵에 입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올렸다. 김경태와 맞대결에서 3오버파 74타를 친 오현우는 합계 6언더파 207타로 공동 3위에 올라 프로 데뷔 이후 최고 성적을 올렸고 3타를 줄인 강성훈(20·신한은행)도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누스틱코스는 좁은 페어웨이와 깊은 러프 로 악명이 높은 골프장.

1999년 대회 1라운드 때에는 강한 바람까지 불어 평균 스코어가 7오버파였을 정도로 골프의 명인들도 울고 갔다.

이번 대회 전장은 7천421야드로 8년전보다 60야드 늘어났고 3번홀(파4)과 6번홀(파5), 17번홀(파4)에는 새로운 벙커가 들어서 선수들을 괴롭히게 됐다.

8년전 악명이 잊혀지지 않았던지 우즈는 “대회를 주관하는 영국왕립골프협회(R&A)가 그 때의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터 도슨 R&A 사무총장은 그 때보다 코스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알선했다. 도슨은 “우리는 대확실을 원하지 않는다.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코스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 대회 때 챔피언에게 주는 클라레 저그를 처음 품에 안았던 우즈는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골프 황제’의 푸념

### “브리티시오픈 코스 너무 어려워”

“8년전보다 코스가 쉽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시즌 세번째 메이저골프대회 브리티시오픈을 앞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도 대회가 열리는 스코틀랜드 영거스의 카누스티골프장 앞에서는 몸을 사렸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99년 이곳에서 열렸던 브리티시오픈에 출전했던 우즈는 “정말로 어려웠다. 내 평생 그렇게 어려운 골프장에서 플레이를 한 적이 없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8년만에 다시 브리티시오픈을 유지한 카